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의 한 사례

-헬싱키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김 종 수 (경희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문학작품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미의식을 학습할 수 있는 한국문학 교육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방향은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교육, 문학을 통한 한국의 사회·문화 교육, 한국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 세분화되어 전개되었다.[1] 구체적으로, 문학작품의 풍부한 언어를 통해 구어학습이나 다른 읽기 자료에서 만날 수 없는 어휘를 접할 수 있고 언어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2] 또한 중·고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문화 지식의 교육이 문학교육을 통해 수행될 수 있음도 논의되었다.[3] 특히 문학어로서의 한국어를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문학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문학만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문학 교육은 문학 자체에 대한 향유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설정해야한다는 주장[4]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구되고 있는 이러한 한국문학교육의 기본 방향은 좀더 현실적인 문제점, "무엇을, 어떻게"라는 교수 내용과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활성화함으로써 보완

---

[1]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국어교육』 111, 2003, 511-512쪽.

[2] 황인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기초단계의 문학작품 읽기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6, 1996. ; 황인교,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6-26집, 2001

[3] 김미선, 「한국 언어·문화·문학의 통합 교육 방안 연구-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1, 2016.; 유현정, 「문화교육으로서의 한국문학교육방안 연구-비교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한성어문학』34, 2015.; 신영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문화교육의 방법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집1호(통권18호), 2016.

[4] 송명진, 「현대소설과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시학과 언어학』 18, 2010, 139-142쪽.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학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변인에 대한 논의에서는 효과적인 한국문학 교육을 위해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문학교육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변인에는 무엇보다 "학습자 분석"과 "텍스트 선정"이 핵심적인 문제이다.[5] "학습자 분석"은 학습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고려[6]와 학습자의 목적별, 지역별, 국가별 차이[7]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에 초점이 맞춰진다. "학습자 분석"에 관한 결론적 제언은 초·중·고급의 학습자 능력과 학습자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텍스트 선정의 문제는 외국인 대상의 한국문학교육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학교육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당위적 인식을 수용하면서도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문학 교육의 정전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8] 해외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문학 강독 교재나 한국어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 한국 내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 등을 조사하고 통계내어 한국문학 수업을 위한 정전 목록을 선정한 연구[9]가 보여주듯이 한국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텍스트를 선정하는 일은 문학 교육의 중요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문학 교육을 다룬 대다수 기존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학습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한 텍스트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문학 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한국문학을 전공한 교수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학교육을 다룬 논문 중에는 학습자와 작중인물의 동일시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고, 교육 내용을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 습득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다문화소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법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다.[10] 이 연구들이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

[5]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서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이다. 대다수의 논문이 특정 학습자의 요구 분석과 그에 따른 텍스트 선정 이유를 밝히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을 상술하고 있다.

[6] 김보경,「한국어 중급학습자를 위한 문학텍스트 활용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김염,「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영상텍스트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7] 주옥파,「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한국학 지향 중국 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20, 2004.; 정병헌,「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어문연구』44, 2004,; 하채현,「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교육의 한 방법-해외 한국 문학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언어와문화』6권2호, 2010; 강병융,「중동유럽 지역에서의 한국문학 교육 연구」, CEESOK Journal of Jorean Studies, Vol.14,2013.; 신영지, 앞의 글.

[8] 정병헌, 앞의 글, 327-329쪽.

[9] 윤여탁·유영미·박은숙,「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 선정 연구-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34, 2014.

[10]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송명진, 앞의 글.;김현정,「다문화소설 완득이를 활용한

기반한 수업 대상 작품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한 학기 동안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교수학습 활동을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문학 수업의 종합적인 구성은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작품으로 배우는 한국문학사 수업"을 베트남 현지 학교에서 진행한 사례[11]는 한 한기 (15주)동안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문학 교육을 실현한 것으로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는 한국문학 감상 능력의 향상과 비교문학적 관점을 통한 표현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15주차의 교수 요목을 제시한다. 문학의 개념과 이해에서부터 고대시가, 향가, 고려속요, 한문수필, 가사, 민요, 판소리, 현대시, 현대소설, 희곡 등 한국문학사의 시기구분에 따른 주요 갈래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학습자의 모국어인 베트남의 주요 문학작품을 비교하며 "작품으로 배우는 비교문학적 관점의 한국문학사 수업"도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가 한국문학사의 시기와 갈래 구분에 충실하면서 한국문학의 전모를 베트남 학습자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점은 의욕적이지만 학습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세밀한 시기 구분과 많은 갈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학습자의 흥미와 연관되고 작품의 이해 가능 정도를 고려하면서 한국의 역사-정치-종교-사회의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한국 문학 교육의 종합적 구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교육의 핵심적인 가치인 작품의 공감과 이해를 토대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수업을 위해 "문학주제론"에 근거한 한국문학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학습자에게 한 한기 동안 교육 내용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가르칠 수 있는 수업 구성을 위해 문학의 주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문학의 보편 주제에서 출발하여 문학 작품이 전달하는 정서적 공감을 체험하고 한국인의 미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랑, 이별, 가족애, 자연 등의 보편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학 주제는 한국문학의 많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문학 작품의 중심 주제이다. 이를 활용하여 문학의 보편적 정서를 공감하고 한국과 한국인의 특수한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의 미의식과 한국의 역사, 정치, 종교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2. 본론

2.1. 학습자 분석 및 그에 따른 주제론 선정

본고가 다루는 "문학주제론"에 따른 한국 문학 교육의 방법은 2017년 헬싱키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입문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수업에서 진행한 것이다. 수강생은 헬싱키 대학교 세계문화학과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전공하는 4명의 여학생이었다. 2017년 9월

한국문학 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신영지, 앞의 글.

[11] 하채현,「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교육의 한 방법-해외 한국 문학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언어와문화』6권2호, 2010, 311-331쪽.

부터 12월까지 총 15주차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고급 한국어Advanced Korean>수업을 먼저 진행하면서 헬싱키 대학 여학생들이 토픽 기준 5급[12]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보니 수강생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한국에 관한 심도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도 파악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이 모두 여학생이어서 한국문학 중에서 여성의 정서에 집중한 작품들을 고려하였다. 문학 수업이지만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충족하기 위해서 영상 매체를 함께 활용한 수업[13]을 구성하였다. 학습자 분석을 기반으로 선정한 구체적인 주제는 "이별과 한(恨)",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가족과 우애"라는 3가지로 구성하여 학습 대상 작품을 선정하였다.[14] 학습 대상 작품은 각 주제에 맞춰 고대가요, 향가, 고려속요, 고전소설, 판소리, 현대시, 현대소설, 대중가요, 영화, TV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을 함께 다루었다.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 함께 다룬 한국문학 작품들의 감상을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체험한 감정을 토대로 발표하도록 하였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특히 한국 여성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감정과 비교하며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한국 문학 교육의 내용을 통해 한국의 역사, 정치, 종교, 사회,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이해 속에서 한국인의 감수성, 한국 현대문화의 특성을 과거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2. 3가지 주제론의 구성과 교수-학습 내용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한국문학입문>에서 다룰 "이별과 한(恨)",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가족과 우애"라는 3가지 주제 하에 전개되는 이 수업에서는 작품의 각 부분에 나타나 있는 체험을 읽고 학습자가 자기의 체험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15] 이를 위해 우선

---

[12] 한국어능력시험(http://www.topik.go.kr)의 등급별 평가기준의 내용에서 문화에 대한 언급을 보면 5급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13] 한국 문학 교육에서 서적 위주의 교육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학 수업은 한국 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학의 범위를 벗어나 역사 자료와 사회 현상, 웹사이트 자료를 함께 이용하며 학습자의 흥미를 제고하고 있다는 논의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보고되었다. – 정병욱, 앞의 글, 339쪽 참고.

[14] 기존 연구에서는 유럽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 수업에서 문학의 보편성을 반영한 한국문학 작품을 제시해야한다는 제언(윤여탁·유영미·박진숙, 앞의 글, 366쪽)과 고전문학 작품에 치우친 교수 내용에서 현대문학 작품을 좀더 많이 포함할 것을 강조(강병융, 앞의 글, 11쪽)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자들의 제언을 참고하여 작품 선정에 유의하였다.

[15] 문학 교육의 첫 단계는 작품 안에 담긴 체험을 학습자 자신의 체험과 연관시키는 활동이다. –

해당 작품을 읽고(보고, 듣고) 내용 파악 후 학습자들의 감상을 발표, 토론하였다. 기본 어휘는 전자사전이나 번역기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해결하였다. 교수자와 학습할 때는 작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관용어, 표현이 낯선 문학어 및 작중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관한 의문점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 전개를 이해하였다. 또한 각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습 대상 작품과 연관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와 교수자가 소장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래 각 <표>의 "참고 제시자료") 학습자들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각 작품별로 교수자가 학습한 주요 내용과 학습자의 활동을 아래에 제시한다.

2.2.1. "이별과 한(恨)"

이 주제에서는 이별의 정서가 여성의 체험을 중심으로 형상화된 고대가요부터 현대소설까지 8개의 작품을 학습한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며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인의 정서가 <공무도하가>에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소설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개인적 정서인 한(恨)이 민족의 정서로 확대되는 과정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역사, 그 중에서도 근대사의 질곡과 정치적 혼란, 무속과 같은 민간 종교의 특성을 알게 한다.

<표 1> "이별과 한" 주제의 교수-학습 내용

학습 대상 작품	학습 내용(교수자)	학습 활동(학습자)	참고 제시 자료(시청각자료)
<공무도하가>(고대가요)	-생사의 이별과 남은 자의 고통	-자국의 이별 노래 소개 -경계로서의 강 이야기	-김훈의 <공무도하>(소설), -이상은의 <공무도하>(대중가요)
<가시리>(고려속요)	-간절한 기다림	-공무도하가와의 차이 말하기	-sg워너비의 <가시리>(대중가요), -<귀향>(영화)
<진달래꽃>(현대시-김소월)	-반어의 표현에 담긴 이별 정서	-자국에서 꽃에 담긴 의미 말하기 –사의 리듬에 대해 말하기	- 진달래꽃 사진, -<진달래꽃> (대중가요)
<아리랑>(민요)	-한(恨) 정서의 개인에서 민족으로 확대	-자국의 전통 노래 소개 -자국민족의 특성 소개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들려주기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영화-신상옥)	-과부 수절의 윤리적 근거와 연애 욕망의 갈등	-인물(특히 화자)에 대해 말하기	-원작 소설 소개
<동백아가씨>(대중가요-이미자)	-트로트 유행을 통해 본 산업화 과정의 한국 대중 정서	-자신이 즐겨듣는 한국노래 소개하기	-일본 엔카
<풍금이있던자리>(현대소설-신경숙)	-이별을 대하는 현대 여성의 정서적 차이	-음식에 대한 기억 말하기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식 장면
<파란만장>(단편영화-박찬욱)	-원한의 한국 현대사와 현대 한국인의 심리	-자국의 종교문화 소개	-무속 소개 동영상 -만신 김금화 동영상

김인환, 『문학교육론』, 평민사, 1979,73쪽 참고.

이 작품들은 보편적인 문학 주제로서의 남녀간의 이별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형성된 독특한 남녀 관계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공무도하가)" – "서러운 님 보내드리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가시리)"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진달래꽃)"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아리랑)"로 이어지는 시적 화자의 반어적 표현에 담긴 간절한 마음을 학습자가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특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연인과의 만남,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 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때 형성되는 개인의 한(恨)의 정서가 여성에게 부과되는 유교 이념의 굴레(사랑방손님과 어머니)나 노동 대중을 소외시키는 근대 산업화 과정의 모순과 연결되면서 현대 한국인들에게 과잉감정(동백아가씨)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이승을 떠나는 망자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에게 해원의 욕망(파란만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토속신앙인 무속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무속은 외국인 학생들이 큰 관심을 갖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데, 한국 예술의 기원으로서의 무속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샤먼의 이야기, 노래, 춤, 굿의 배경 그림과 음악 등이 한국 민중예술의 기원이 된다는 점을 소개함으로써 예술의 시원으로서 주술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남녀의 문제에서 타자의 고통을 생각하며 윤리적인 이별을 선택하는 인물의 결단(풍금이 있던 자리)을 공감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현대 한국 여성의 면모를 제시한다.

2.2.2.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이 주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조부터 현대시까지 5개의 작품을 학습한다. 신분제와 남녀 차별의 한계 속에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성취하는 중세 여성의 욕망을 이해하며 현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첫사랑을 형상화한 작품을 학습하면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체험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1950년대 사회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표 2> "사랑과 그리움" 주제의 교수-학습 내용

학습 대상 작품	학습 내용(교수자)	학습 활동(학습자)	참고 제시 자료(시청각자료)
<동짓달 기나긴 밤>(황진이-시조)	-과감한 시적 발상에 담긴 님에 대한 그리움	-자국의 사랑 노래 소개	-시조 창 -기생에 대하여 -조선시대 신분제
<춘향전>(고전소설)	-신분 차이를 극복한 사랑의 성취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교 -자국의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 소개	-판소리 사랑가 -한국의 멜로드라마
<소나기>(황순원-현대소설)	-첫사랑의 그리움	-청소년기 연애 감정 떠올리기	-한국 농촌 풍경
<너를 기다리는 동안>(황지우-현대시)	-기다림의 기쁨과 사랑의 의지	-누군가를 기다린 경험 나누기(그때의 심리 기억하기)	-기다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장면들
<소나기>(TV드라마)	-소년의 성장기	-소설과 드라마의 차이 비교하기	-1950년대 생활상 소개

이 작품들 역시 보편적인 문학 주제로서 남녀간의 사랑과 그리움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이해과정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화자의 심리와 연관된 학습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표현해내는 데에 주목한다. 시간에 대한 재미있는 발상으로 "사랑하는 임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여성의 시선(황진이 시조)이 현대에 더욱 발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까닭은 시조의 주창작자층이 남성이었고, 작자의 신분적 상황의 자유로움에서 기인하였음을 알려준다. 조선 시대 사회가 남녀의 차별적 지위와 엄격한 신분제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러한 사회적 굴레 속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은 신분을 초월하여 사랑을 이루고 싶어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하고 있음(춘향전)을 알려준다.

조선 시대 신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하는 사랑의 욕망은 현대 소설로 오면 첫사랑의 추억을 환기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대비적인 성격을 지닌 순박한 시골 소년과 조숙한 도시 소녀의 사랑과 이별에 담긴 서사(소나기) 전개의 개연성을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원작소설을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TV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원작과 TV드라마의 매체 변환 과정에서 달라진 요소들을 학습자들이 찾아내게 한다.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주의 깊은 이해의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생활상 –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시장 풍경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다림의 행위 속에 내재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랑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한 기쁨임을 형상화한 시(너를 기다리는 동안)를 통해 가슴 설레는 생의 경험을 환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2.3 "가족과 우애"

이 주제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을 다룬 향가부터 대중가요까지 5개의 작품을 학습한다.

유교 이념에 근거해 형성된 전통적 가족관이 현대까지도 한국인들의 삶을 규정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현대로 오면서 한국인들의 가족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표3> "가족과 우애" 주제의 교수-학습 내용

학습 대상 작품	학습 내용(교수자)	학습 활동(학습자)	참고 제시 자료(시청각자료)
<제망매가> (월명사-향가)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삶의 허무 자각	-친한 사람의 죽음 경험 소개 -자국에서 형제 간 그리움 담은 노래 소개	-고대/중세/근대 한반도지도 -불교문화에 대하여
<심청전> (고전소설)	-소녀의 효성	- 자국의 가족 문화 소개 -자국의 악인 캐릭터 소개	-판소리 심청가(심봉사눈뜨는 장면) - 뺑덕어멈 이야기
<성탄제> (현대시-김종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 자랑하기	-한국의 크리스마스문화 -유교적 가부장 사회(제사문화)
<어머님께> (god-대중가요	-어머니에 대한 연민	-청소년기 어머니에 대한 기억(기억에 담긴 감정 표현)	- 싸이의 <아버지> -드라마<부모님전상서>
<오빠가 돌아왔다>(김영하-현대소설)	-아버지 권위 약화와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	-작중 가족의 인물들 분석하기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화자와 비교	-교복 문화 소개 -21세기 가족관 변화 (1인 가족)

"가족과 우애"라는 주제로 묶인 작품은 가족 구성원간의 사랑과 연민을 다루고 있다. 이 문학 작품들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을 이해할 수 있고, 현대에 오면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관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한국문화적 특수성을 찾아낼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신의 가족 관계나 자국 문화와 비교하는 활동을 많이 수행한다.

"한 가지에서 나고"라는 비유가 형제임을 뜻하는 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제망매가) 형제 간의 애정에 관한 학습자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작자가 불교 승려라는 점에서 한국의 불교문화를 유럽의 기독교문화와 비교하여 소개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효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심청전)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긴밀한 의존관계가 유교적 이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장유유서의 이념이 가족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한국의 위계 문화를 제시한다. 한국 가족의 위계 질서의 정점에는 아버지가 있음을 말하고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는 현대시(성탄제)에 나타난 "어느새 나도/그 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표현을 통해 유교의 가부장제가 현대까지도 지배적인 한국 가족 문화임을 소개한다. 전통적으로 아버지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희생적인 어머니를 대하는 연민어린 시선(어머님께)을 현대의 젊은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음을 제시하며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윤리 의식의 특수한 면모를 말한다.

한편 21세기에 진입하면서 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관에서도 찾아오게

되었다. 가부장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희화화되면서(오빠가 돌아왔다) 가족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제의 해체와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적 관계에 기반해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2.3 헬싱키 대학교 <한국문학입문> 수업의 실제 : <공무도하가>의 예

2.3.1. 작품 소개–읽기

公無渡河歌 (공무도하가)	
	작자 미상
그대 강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공무도하)
그대 끝내 강을 건넜구려	公竟渡河(공경도하)
물에 빠져 돌아가셨으니	墮河而死(타하이사)
그대여 어찌해야 하리오	當奈公何(당내공하)

우선 한글로 작품을 읽게 하고 한자로도 읽어보게 한다. 현재까지 전하는 한반도에서 불려진 최초의 노래라는 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현재에도 여러 방면에서 계승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거기에는 정서적으로 이별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고, 극적인 상황으로 상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중 고전문학 작품들의 경우 한자로 쓰여진 것이 대다수임을 알려준다. 한문이 중국 문자라기보다는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나 아랍문화권에서 고전아랍어와 유사하게 중세 시대 동아시아의 보편문자임을 설명한다. 작품의 상황을 학습자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설명하게 한다. 읽은 후 학습자 각자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도록 한다.

2.3.2. 배경설화 소개

조선에 곽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에 배를 손질하고 있노라니,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사나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끼고 비틀거리면서 강물을 건너는 것이었다. 아내가 따라오면서 말려도 듣지 않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아내는 '공무도하'(公無渡河)라는 사연의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소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를 다 부르자, 아내도 빠져 죽었다. 사공은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麗玉)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여옥이 그 노래를 다시 불렀다

배경설화를 통해 노래에 담긴 극적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한다. 배경설화를 들려주기 전에 학습자가 말했던 작품에 대한 감상과 비교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강과 강변, 나룻배, 뱃사공에 대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배경설화에 대한 설명 후 작품을 다시 읽

어보도록 한다. 학습자가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한다. 학습자 모두에게 작품 중 가장 마음을 끄는 어구를 선택하게 하고 그 이유를 말하게 한다.

2.3.3. 작품에 대한 감상과 주제 도출

학습자들이 말한 내용을 열거하고 공통된 요소를 찾는다. 예를 들어 "그대여 어찌해야 하리오" 같은 어구에 담긴 이별의 아픔이 떠나간 사람을 보낸 화자에게 간절한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음을 상상하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목도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 속에 품게 되는 안타까움과 죄의식을 설명한다. 그런 안타까움과 죄의식을 풀지 못할 때 남겨진 사람의 마음 속에 응어리가 되어 한(恨)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마음 속에 담아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는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에까지 한국 사회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뒤이어 보여준다.

2.3.4. 주제의 계승

<공무도하가>의 주제가 현대에도 계승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인에게 공무도하가에서 표출된 이별의 아픔이라는 주제,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현대에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이상은이 부른 대중가요 <공무도하>(1995)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https://www.youtube.com/watch?v=U8RskGDLoOo)하고 김훈의 현대소설 <공무도하>(2009)를 소개한다. 또한 진모영 감독이 연출한 2014년 작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 유튜브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sDxVix7JieM)을 보여줄 수 있다. <공무도하가>의 노래와 배경 설화에서 그려볼 수 있는 이별의 정황에 대한 상상력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계승되며 그 정서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2.3.5. 심화 학습 – 비교문학적 접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하는 <공무도하가>의 상황에 등장하는 "강"은 다른 나라의 문학 작품이나 문화 산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문학 공간임을 소개한다. 즉 강이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경계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은 인류 보편의 문학적 상징임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 (Jordan river)"이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레떼(Lethe)의 강" 같은 것을 환기시킨다. 이승과 저승,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가르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강"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로 인한 슬픔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에 문학적으로 오랫동안 씌여왔음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국가에서 널리 알려진 강(江)과 관련된 이야기를 각자 소개하도록 한다.